



일시

2013. 11. 23 Sat 토요일

PM 3:00 오후 3시



사회
방현주



출연
차인표



노사연외

장소 연세대학교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사단법인 여성
강 경 민 이사장

제9회 여명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기 모세를 더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살아만 다오. 살아있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좋은 사람 만나고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모세는 나일강에 떠 내려가기 전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애굽 왕궁학교와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일생이 어떠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길목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셨고,
모세의 인생이 역사의 현장에 가장 요긴하게 역할을 하고,
가치있게 기여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버틸 수 없어서 “너라도 살아다오” 등 떠밀어 내보내기도 하고,
먼저 목숨 걸고 탈출해서 어떻게든 북에서 자녀를 구출해 데려 오기도 하면서,
탈북 자녀들의 어머니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살아서 남쪽 땅에 무사히 도착해다오.
좋은 사람 만나고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명학교에서 치유되고 보호받고 교육을 받으며 내면의 보석이 드러나고,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하고 통일 한국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막연하게 소원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꿈꾸고 미래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봉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여명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관람해 주시고
더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꿈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먹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기도 합니다.

01	오프닝	믿음으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계벳
02	태권도	북한에서 이곳까지
03	트럼본	성자의 행진
04	학생 스피치	오마니 등에 업혀 두만강을 건너다
05	팬플릿	마더오브마인
06	통차임	오버더레인보우
07	뮤지컬	다시 시작하면 돼
08	영상	THANK YOU 오마니!
09	교장 스피치	기도응답의 통로
10	영상	졸업생과 재학생이 들려주는 ‘내 삶의 기적’
11	후원약정의 시간	차인표
12	특별공연	컴패션밴드
13	특별공연	노사연
14	다같이 합창	Joyful Joyful · 거위의 꿈
15	행운권 추첨	

Contents 목차

모시는 글 – 이사장 강경민	02	생명을 구하는 삶을 꿈꾸다 – 박요셉	11
제9회 여명의 날 프로그램, 목차	03	인포그래픽	12
교훈, 설립취지, 교육철학, 교육목표, 연혁	04	천사들의 합창	14
여명학교 10년의 기적 – 교장 이홍훈	06	후원약정서	15
축산 꿈나무의 기도 응답 – 교감 조명숙	08		
중국에서 이곳까지 – 여명학교 기숙사 사감	09		
꿈에 그리던 제주도 수학여행 – 유OO	10		

THANK YOU 오라니!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

교육철학

회복 인간 본연의 존엄한 가치를 찾는 것
이해 다양성의 인정, 상호존중의 의미
사랑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타인과 대등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태도의 핵심이며 방향성

설립취지

여명학교는 2004년 9월 14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행복한 남한생활과 통일 인재양성을 위해 개교한 학력인정 대안학교입니다

교육목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연혁

- 2004. 04 여명학교 창립이사회 제1대 박병식 이사장 취임
- 2004. 09 여명학교 개교 제1대 우기섭 교장, 조명숙 교감 취임
- 2005. 06 사단법인 여명 통일부 인가
- 2007. 02 사단법인 여명 제2대 이만열 이사장 취임
- 2008. 03 여명학교 남산동으로 확장 이전 (72명 수용)
- 2010. 03 여명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인가(서울시 교육청)
- 2010. 05 제3대 강경민 이사장 취임
- 2012. 04 제2대 이홍훈 교장 취임
- 2013. 05 중학교 위탁 및 고등학교 과정 정원 추가(전교생 총 90명)



2013.11.23

여명학교 10년의 기적 “여명학교의 사명”

여명학교 이 흥 훈 교장

제가 여명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에 받았던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고 인사도 잘하고 씩씩하다는 것이고, 둘째, 반대로 학생 개개인의 내면 상태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명학교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고 잠적을 하고 소식을 끊기도 했습니다.

2002년부터 한해 탈북자의 수가 1000명을 넘었고, 한 때 3000명에 육박한 해도 있었고, 올해까지도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남한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사회의 최하위 계층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한국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세운 학교가 여명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학교이지만 학생들이나 환경 여건이 뒷받침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교에 붙들고 있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쌔름하며 학생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오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지금까지 여명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오랜 노력으로 범을 바꾸고, 학력 인정을 받고, 대안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던 과정의 수고에는 마음이 숙연해 지기도 했습니다. 여명학교의 토대를 만드셨고 지금도 졸업생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기섭 전임 교장 선생님은 영원한 여명인이십니다.

이제 여명학교는 그 동안 만들어진 토대 위에 다음 단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에서는 특별히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명학교에서는 특별히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명학교에 들어 온 학생은 어떻게든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여명학교 사역의 본질이다

2. 교육이 중요하다.

북한의 교육이 거의 무너져 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을 만나기가 어렵다. 교육을 통해 인성과 학습역량을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



3.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근본적이고 건전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돋는다.



4. 문화가 중요하다.

신앙과 교육의 두 날개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이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하는 사람, 통일 한국에 꼭 필요한 인재로 비상하게 하는 교육 문화의 토양을 만든다. “이들이 없었다면 큰 일 날 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재가 양성되는 문화를 만든다.

5. 후원자가 중요하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후원자님들이 하신다.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다. 우리는 후원자님들의 대리인이며 동역자로서 후원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일한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용기를 얻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여명학교 설립 10주년입니다.

여명학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먼저 지난 10년간의 여명학교의 결실들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이 사회와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여명학교가 기여하고 집중할 역할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이 어쩌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방치하면 사회적인 문제아가 될 수도 있고, 공들여 교육하면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사랑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재를 배출하고 교육적 노하우를 축적하여 미래의 통일 한국이 축복이 되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뜻도 이유도 모른 채 60여 년을 암흑 가운데 고생했던 북쪽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밝은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여명학교가 통일의 그날에 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화합을 가져오고 북쪽 동포들도 자유와 평화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후원자님을
소개합니다.

교감 조명숙



종자돈(種子豚) 사업을 위주로 하는 다비육종의 윤희진 회장님입니다. 이 어르신은 3년 전 먼저 여명학교에 찾아 오셨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명을 후원해 주기 시작 하셨습니다. 윤희진 회장님께서는 학교에 재정적 후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축산관련 현장 체험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인 여명학교의 학생들은 단순한 북한의 직업 세계에서 살다가 남한의 수 만 가지에 달하는 직업현황을 보고 놀라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 관련은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라 생각하여 기피합니다. 처음 축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더니 여명의 학생들은 “선생님 북한에서 돼지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고,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든데...북한에서 많이 봐 왔는데 꼭 남한까지 와서 그거 보러 가야 해요?”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희 교사들도 내심 염려스러웠습니다.

윤희진 회장님께서 친히 천안연암대학에서 축산을 견학할 기회도 주셨고, 젖소 농장인 농도원과 다비육종의 종돈축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북한과 달리 현대식으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활기찬 축산현장을 본 학생들은 놀랐고 몇몇의 아이들은 꿈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 가장 최근에 남한에 입국한 철금(가명) 이가 있었는데 탈북 직전까지 산속에서 혼자 나무하며 살았기에 남한에서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려워했습니다. 늘 산으로 들로 다니던 철금이는 앉아서 배우려니 힘들었던 것입니다. 철금이가 연암대학을 가기로 하였고 공부를 하면서 윤희진 회장님의 배려로 선진유럽의 축산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며 2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014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윤희진 회장님께서는 철금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다비육종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약속하셨습니다. 다비육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윤희진 회장님처럼 천사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들로 인해 기회를 얻고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금이의 모습을 보며 올해 또 한 명의 축산 꿈나무가 생겼습니다. 여명학생들의 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키우시는 후원자 분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명학교 기숙사 사감 OOO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기숙사 사감



중국에서 얼마 전 한국에 오게 되었고, 여명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여명학교의 졸업생인 승준(가명)이는 중국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승준이의 친모가 차 사고로 사망 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함께 살다가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 살도록 승준이를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 승준이는 북한으로 송환되었는데, 다시 탈출을 해서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지나서, 한국에 먼저 정착한 승준이의 친 누나로부터 연락이 달아 승준이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헤어졌던 누나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승준이는 우리를 잊고 지내도 되는데 그 어렵게 모은 한국 돈 40만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안에 잡혀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승준이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고 힘을 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혼희와 은희라는 예쁜 친 자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쉘터를 만들어서 지내기도 하는데, 저는 몇 명의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사는 모습 보여주고, 원하면 저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든지 이모라고 하든지 호칭은 선택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5년 6년씩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한국에 소재한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학비가 없었는데, 승준이가 첫 학비 270만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

갈 곳 없는 우리 부부에게 자신의 집을 함께 쓰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은 승준이네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심이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 혼희랑 은희도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현재는 김정심 선교사님께서 혼희와 은희의 어머니로서 따뜻하게 양육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6명의 남자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감사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안전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기에 열악함 속에서도 그저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는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안전함이 보장되고 삼시세끼를 해결하게 되다 보니 초심이 사라질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을 되새기며 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도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아이들이 잊지 않고 보답하려 하고, 나눠주려 하고, 받은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작은 꿈이 있다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6명, 딸6명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6명을 기르고 있기에 이제는 딸6명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북한 땅을 위해 늘 기도하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수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시대의 통일 인재로 성장하고 북한 땅에 공부 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꿈에 그리던 제주도 수학여행 - 유OO

환상적인 수학여행
을 선물해주시는 후원
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곳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보고 싶어도 우리 능력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명학교에 들어와서 후원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그 제주도를 진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첫날 성산일출봉을 답사했습니다. 일출봉 꼭대기에 올라가 밑을 보니 넓은 바다 가운데 높은 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후 우도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유람선을 타고 우도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소처럼 생긴 우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둘째날 저희는 쇠소깍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맷목을 타고 강을 오가며 사람 바윗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좋았던 것은 잠자는 숙소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는 TV보면서 저런 집에서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원하던 그런 집을 구경하고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후원자님들도 가보지 못한 곳에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먼저 가 보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한 저에게 제주도 수학여행을 선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후원 받으면서 공부하고, 또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서 꼭 성공하고 제가 후원 받았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삶을 꿈꾸다 - 졸업생 박요셉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2006년 2회 여명학교 졸업생 박요셉입니다. 올해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소득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불과 6년전까지 저는 중국에서 목동으로 양치기 청년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수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요셉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구글에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방문에 대한 짧은 소감



구글아이디어가 주최한 “Illicit Networks: Forces in Opposition (INFO)”에서 어떻게 전세계의 불법 네트워크가 IT 기술을 이용하는지를 주제로 전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북한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를 통해 이번 구글 프로젝트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프로젝트를 통해 트리베카 영화제 이사장님을 만나 여명학교에 대해 이야기 했고, 구글 아이디어와 트리베카영화제의 후원으로 여명학교 미디어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부터 영상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께 영상 메세지를 보내려고 혼자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여명학교에서 미디오 동아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언젠가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트리베카 영화제에 훌륭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여명학교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명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처음 A,B,C,D 를 배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교과서가 영어 원서로 되어있고, 시험문제도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서 답안지에 한 글자도 적지 못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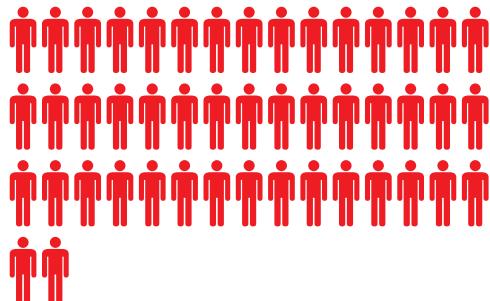
(사진설명: Tribeca Film Institut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정진하고, 통일이 되어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한국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왔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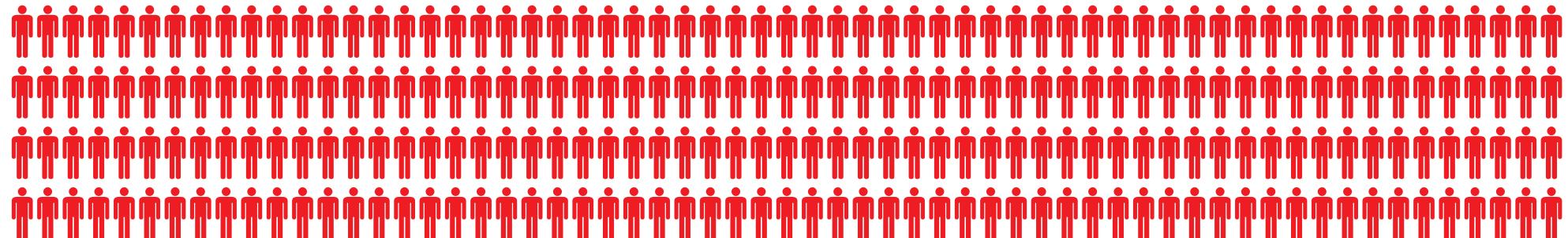
CROSSING

2012년 12월 기준 탈북자 누적인원 24,608명.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동안,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9명 중 1명은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장벽을 넘고 강을 건너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 7,000km를 거쳐온 이 아이들은 남한에서 또 다른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한 이탈 청소년 누적인원 474명



2012년 12월 기준 북한 이탈 청소년 누적인원 약 2,800명



REALITY

학업지속의 어려움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 | 100명 중 약 5명



"북한에선 떠는 문전제에
신경 쓰다 보니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남한 어울림은 학원이다 뭐다
준비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마라갈 수 없거든요.
방과 후 수업 외에는 학원에
형편도 안돼요."

남한학생의 중도탈락률 | 100명 중 약 1명

탈북학생들의 고민
1위 | 공부
2위 | 진로

가장 어려운 교과목
1위 | 영어 2위 | 수학 3위 | 사회·역사
1 2 3

"한국 오기 전 태국 강습에서
ABC를 배웠어요. 그때 영어단어를
조금 외우고 한국에 오니까
공부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학교에
다닌다는 것에 의미를 찾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가정 | 83%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72.3%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탈북자 가정의
입국 후 이혼율 | 64%



"한국에 먼저 온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가 재혼해
서 아내와 동성 그룹과 가족이
시작해 됐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

탈북청소년의 약 60%가 불안을 느끼고
30%는 정상범위를 벗어난 우울 정도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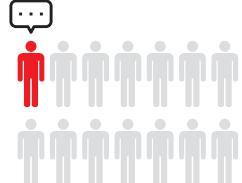
"많은 탈북자가 탈북 이후 북한 내 체류시기, 탈북 과정 및 이후 중국, 베트남 등
체류 과정에서 많은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신고상황에서는
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 적응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건강 문제 | B형간염, 당뇨, 빈혈 등

탈북과정에서의 건강 악화로 여명학교 18~25세 학생 중
52.7%가 당뇨와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소외



"남한 말은 영어 외화어가 대부분 같아요.
북한에선 불편한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원주민 술 달라고 했다가
못 알아들어서 참피했어요.
체험복도 북한에선 만복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못 알아듣고 한참 혀렸어요."

WHAT CAN WE DO?

아이들에게 꿈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4천 8백원

여기, 4천 8백원의 아르바이트 시급을 위해
한 시간의 수업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만원 = 고통의 기억들을 치유하는 심리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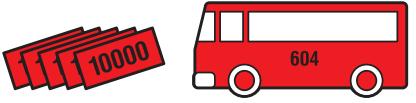
여명학교 학생들의 3회 상담치료비

북한에서, 탈북의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망상담원에서는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듣고 있습니다.



5만원 = 학생 한 명의 1개월 교통장학금

홀로 7,000km를 걸어온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이제는 '함께 걷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10만원 = 새로운 사회에서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학습 비용

당이 정하면 해야 하는 북한에서 와서
이곳에서는 직접 체험하며 꿈을 찾아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30만원 = 월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숙사비용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을 경험했던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기숙사는 집 이상의 공간입니다.





제 이름은 김윤(Daniel Yoon Kim)이에요.

현재 미국 보스턴에 살고있고, 이름뜻은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하는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김주아예요.

기쁨의 단비라는 뜻이고, 생명과 기쁨이 늘 가득 차서 어디에서든 기쁨을 전하는 단비 같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저희 이름은 장희원, 장희진이고 자매예요.
하나님과 모든 이들의 기쁨의 균원이 되길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은 정혜원이에요.
'은혜의 균원은 하나님께서'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 왜 '여명'을 후원하셨는지,
혹은 하시는지?

● 후원을 아기의 이름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홍주은(윤이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래 전부터 후원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근에서야 그것도 아주 적은 액수로 후원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통일과 교육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의 이 작은 꿈,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준비된 미래의 일꾼들이 바로 여명에 모여있잖아요.

김지원(주이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통일을 소망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으로 후원했어요. 주이가 좀 더 커서 엄마의 이런 마음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알게 되어, 자신의 의지로 용돈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서 후원을 하게 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 여명학교 학생들, 학교에
기대하는 바, 혹은 축복의 메세지

이진경(혜원맘)

한국은 학생들이 살기가 침 힘든 나라인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교육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과거의 환경의 틀을 벗고, 여명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리잡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기본정보

이 름	자택번호
휴 대 폰 번 호	가입동기/추천인
이 메 일	

□ 신규후원

월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주민등록 번호	직업				
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CMS신청(자동이체 위임) <input type="checkbox"/> 직접이체				

CMS자동이체납부

출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잔액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익월 출금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증액후원 현재 후원금액에서 1만원 2만원 기타 ()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 일시후원

()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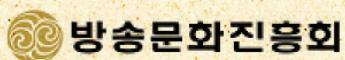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083896 (예금주 사단법인 여명)

본인은 수집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정기 후원에 약정하며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____ 년 ____ 월 ____ 일 후원인 _____ (서명)

(사)여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후원자님의 수집된 개인정보를 후원 목적에 한해 활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후원



site. www.ymschool.org facebook. facebook.com/ymschool twitter. twitter.com/schoolym

addr.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여명학교

tel. 02-830-3514 (사단법인 여명 후원 담당) / 02-888-1673~4 fax. 02-888-1676

email. schoolym@dreamwiz.com